

방사선치료 전립선암도 '효과'

방사선 치료가 전립선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처음 나왔다.

지금까지는 방사선치료가 전립선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미국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의대 중앙방사선과 리처드 발리센티 박사팀은 "암세포가 전립선에 국한된 환자가 정상보다 높은 단위의 방사선 조사를 받은 경우, 사망률이 다른 환자들보다 평균 32% 낮았다"고 항암요법 국제 권위지 '임상종양학 저널' 최신호에 밝혔다.

연구팀은 "75-95년 사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돼 방사선 치료만을 받은 환자 1560명의 사망률을 비교 조사한 결과,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전립선암 환자에게는 방사선요법이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사에서 전립선암 중 예후가 가장 나빴던 환자들의 경우, 단위를 높인 방사선요법이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발리센티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로 고단위 방사선요법이 전립선암 치료법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00/07/20 23면>

수천년간 핵폐기물 보관가능 물질 발견

미국 영국 일본 3개국 공동 연구팀이 방사성 핵폐기물을 수천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고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가 보도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쿠르트 시카푸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상대적으로 무질서한 원자들로 구성된 형석(螢石)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세라믹 물질을 발견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이 물질의 원자들은 방사능에 의해 유발되는 영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이 물질로 만든 보관 용기는 수천년간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은 현재 안전을 100년 정도밖에 보장할 수 없는 용기 속에서 보관되고 있다.<세계일보 2000/08/05 11면>

대덕단지 원자력밸리 추진

원자력 관련 벤처기업들로 구성된 원자력밸리가 대덕연구단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벤처기업들은 7일 대덕연구단지 내에 원자력밸리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 집적시설로는 올해 대덕 바이오밸리 조성에

이어 추진되는 원자력 벨리에는 한빛레이저, 카이텍, 금광, 한국 광학시스템, 한울로보틱스를 비롯해 최근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원다레이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은 이를 위해 최근 원자력벨리 조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부지를 물색하는 한편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벤처기업은 연구단지내에 원자력벨리가 조성될 경우 생산 및 실험시설을 동시에 확보, 원자력 관련기술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 관계자는 “원자력벨리는 대덕연구단지가 기술집적단지로 정착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들 벤처에 관련 정보 및 경영을 총괄해 지원할 수 있는 벨리 조성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내외경제 2000/08/07>

한·일 ‘원자력안전협력약정’ 체결

한국과 일본은 1일 ‘원자력시설의 안전 및 비상대응기술 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지난 90년 서명교환한 ‘한·일 원자력협력각서’에 따른 것으로 과학기술부의 조청원(趙靑遠) 원자력안전심의관과 일본 과학기술청 히로시 이세로 원자력안전국 차장간에 약정체결 서신이 교환됐다.

약정 체결에 따라 한·일 양국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및 비상시 대응기술에 관한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 전문가 및 정보 교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매일경제 2000/08/02>

